

#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선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 Case Study on Experiences of Using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by the Deaf College Students

Sun Hee Kim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핵심사례(key case) 2사례와 특이사례(outliner) 1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수학습영역(4개 주제), 시설·설비영역(3개 주제), 대학생활영역(4개 주제)에서 총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적·정책적·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교육복지현장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장애인감성 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원격지원 가능한 대학과 MOU체결로 교수학습환경을 보완하고 제한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행해지는 관습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예산과 변화하는 학습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ICT와 IoT기술을 접목하는 교수학습법 개발연구가 더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각장애대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복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using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by deaf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selected by purposeful sampling method. The validity of the study was confirmed by in-case and cross-case analysis. As the results in this study, eleven-subthemes in three sections of educational welfare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needs to be considered: supplement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y signing an MOU between universities that can remotely provide assistance to the disabled students' support center, improving disability sensitivity and treatment, and solving limited budget problems in the educational welfare fie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ping capac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reate a school culture to solve the customary discrimination and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at combine ICT and IoT technology to guarantee the right of deaf students in a limited.

**Key Words** : Deaf-College Student,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Educational-Welfare Service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각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청각장애대학생들은 청각과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수반하여 전문도우미, 교수 학습기기지원이 없이는 학업성취와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Sign Language) 또는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Kim (kimsunhee@skku.edu)

Received June 4,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4,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구어(口語)로 소통하여 일반 사회복지사나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증가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영역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대학진학 현황은 2014년 4,812명에서 2017년 9,103명(전체 학생의 1.44%)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각장애 학생은 전체 장애대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1].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학습환경의 동등한 접근(equal access)을 위한 교육복지 전달체제로 개인적,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모델이 제시된 이래, 2011년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0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교수학습지원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허술한 편이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수화동시동역, 대필 학습활동보조인, 속기사, 학습기기(노트북) 대여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화통역 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 전문인력 배치가 용이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수화통역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나 [2,3],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화통역사나 대필 학습도우미를 찾기 어렵다[4].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아[5], 청각장애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대학생활적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무장애 교육환경을 구축(barrier-free)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6], 학교별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는 조직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장애학생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맞춤형 교육보장 실현을 위해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청각장애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바람직하게 수용하고 음성언어 중심의 일반사회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농정체성(deaf identity) 형성과정[7]과 농정체성이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8,9], 청력손상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수화통역의 필요성과 전문가 연계, 수화통역서비스 이용경험[10]과 삶의 질[11] 등을 연구했다. 수화통역사의 역할과 직무특성[12]을 구체화하고, 수화언어 동시통역과정을 상세하게 조명하고[3], 교육[13]과 문화, 직업 [14,15]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화통역서비스의 효과를 검

증했다. 그 밖에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를 위해 공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비스 개발[16,17]과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들[18,19]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와 정보접근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수학습, 시설설비, 생활영역에서 교육복지서비스의 대학별 차이뿐만 아니라[20], 일반 대학생들과 동등하지 않은 학습환경에서 교직원, 학습도우미, 일반 재학생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비언어적·언어적 차별이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아직 해결해야 할 실천적 과제로 남아 있다. 정리하면, 그동안의 연구들은 청각장애에 무지했던 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력해 왔고, 청각장애대학생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특수교육 방안, 청소년의 농정체성과 농문화 형성과정, 수화통역과 전문가 연계, 장애학생의 진로지도와 같은 특정분야에 한정적이었다면, 향후 청각장애인 연구는 청각장애 당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권리와 서비스 욕구가 반영된 연구여야 한다. 증가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영역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청각장애학생 심층면접을 통해 당사자의 언어로 표현된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고 부가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청각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현황

장애인복지법에서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언어장애인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연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청각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청각·언어장애인은 322,32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2.66%로 추정하고 있다[21]. 청각장애인

의 교육은 초·중·고 학과정이 공·사교육기관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통합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특수교육통계에서는 청각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는 전국 14개교이고[22],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청각장애인들이 있는 같은 학교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1차 언어를 수화를 채택하여 소통하며, 장기간 기숙사 공동생활 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농문화)가 형성된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어려서 부모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성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은 대화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적 미성숙, 자아중심, 충동성 및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쉽게 표출하여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13,23,24].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일반학교 통합교육과정에 재학 중이며, 인공와우로 음성언어 소통이 가능하여 일반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업참여와 성취의 어려움이 없으나, 비장애인으로서의 삶도 농문화에 속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한다[7,25]. 청각장애대학생의 대학생 시기는 새로운 환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이며, 제2의 사춘기 또는 늦은 청소년기(delayed adolescence)라고 할 수 있다[26-28]. 청각장애대학생들은 연령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후기와 성인기의 시작에 맞물리는 역동적 전환시기이다.

교육복지는 복지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교육적 노력이다[29]. 교육복지정책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교육소외(교육배제) 또는 사회적배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 보장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주요 관점에 두고 있다. 청각장애대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은 기본적인 인권차원이나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제도적으로 교육차별로부터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수학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

추어 시설을 장비하거나 그 밖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0조, 31조)에서는 장애인의 대학생할 적응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수학습영역, 시설설비영역, 생활영역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복지서비스의 일환인 대학 내 편의시설과 학습도우미 활용시 학업성취와 대학적응에 도움이 되고[30,31],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학업 및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우미, 교수,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32]. 그러나 장애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주변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동정적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뭔가 짐을 지어준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것은] 대학생활에서 은연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33]. 그러므로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소속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영역, 시설설비영역, 생활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청각장애인으로써 겪는 차별적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는지 탐색하여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장애학습지원지원센터 이용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교육복지정책 중 대학기관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청각장애대학생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탐색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지를 이유와 이것이 왜 사례가 되어야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연구주제인 사례는 하나의 현상측면이고, 연구에서 수행되는 분석들은 사례를 조명하고 설명한다[34]. 연구의 목적이 되는 핵심사례(a key case)와 다른 특성으로 조명할 수 있는 특이사례(outlier status) 또는 일탈사례(deviant)[35]가 있다. 사례의 핵심성(key-ness)과 특이성(outlier-ness)은 연구의 분석적 틀의 전형적 예가 되기

에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탐색연구의 목적을 달성위해 핵심사례 2사례와 특이사례 1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 3.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 3.2.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22개교(교육부, 특수교육원, 2015) 중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 2사례(핵심사례)와 청각장애대학생이나 우수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청각장애 재학생 1사례(특이사례)를 유의표집을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조기기로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보조기기로 활용하였으며 구화와 수화를 병행해서 의사소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case1	case2	case3
degree of disability	2	3	2
communication method	oralism + sign	oralism	oralism + sign
major	painting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year of college	4	3	2
assistive device	cochlear implant	hearing aid	cochlear implant
graduated high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연구참여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2018년도 상반기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 분석을 <Table 2> 정리하여 제시였다.

Table 2.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students

University		case1	case2	case3
student with disability	deaf	10	20	1
	disabled	45	112	13
	total student	12,890	7,325	4,293
staff	administration	2	6	2
	supporter	25	88	6
assistive device	type/number	10(32)	22(54)	3(3)
	deaf/number	2(5)	1(1)	0(0)
disability awareness program(time/year)		240	200	120

belonging department	student affairs	academic affairs	student affairs
	volunteer center	disabled student services center	student counseling center

### 3.3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가 청각장애대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속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대한 탐색연구를 위해 8월~10월까지 청각장애특성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1)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원에서 청각장애대학생 재학 현황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2)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하여 평가보고서와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전국농아인대학생연합 밴드에 모집 공고하여, 자발적 참여자 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청각장애대학생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인터뷰 일정을 결정하였다. 4)인터뷰 장소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사회복지연구소 협조로 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장소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승낙을 얻었다. 5)청각장애의 특성상 음성언어와 수화로 인터뷰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습지원센터에서 녹화와 녹취가 가능한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6)자료수집단계부터 인터뷰 계획 및 실시, 사례분석과정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과정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분석결과 및 합의 작성시 참고자료에 포함시켰다.

### 3.4 분석 방법

연구의 분석 자료는 심층면담 구술 및 녹화기록, 연구 노트,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 연구자의 메모 등 다양한 자료원에서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Gray Thomas and Kevin Myers (2015)의 사례연구인 핵심사례(key case)에 대한 사례내분석과 사례간분석(cross-case analysis)을 적용하였다[34]. 첫째, 인터뷰영상자료와 수화통역을 모두 전사하고, 둘째, 수화통역전문가에게 전사내용 검증, 셋째, 다양한 자료원천에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 넷째,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교수학습영역, 시설·설비영역, 대학생활영역으로 정리, 학교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주제목록에 따라 지지, 보강, 예증할 수 있는 인터뷰 기록, 연구메모를 매칭하여 구조적으로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정리했다.

### 3.5 연구윤리

연구참여자의 보호와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2017년 8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수행 절차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연구로 인해 연구참여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청각장애대학생에게 참여동의서를 받았다. 둘째, 자료수집 내용의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것을 설명했다. 셋째, 인터뷰 녹취 및 녹화자료는 별도의 경로로 지정된 파일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연구자 이외에 정보접근을 차단하여 비밀보장을 준수했다. 또한 수화통역전문가로부터 연구내용과 전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질적연구에서 Lincoln과 Cuba(1985)의 4가지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에 따라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36].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관성은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공동연구 교수에게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사실적 상황에게 가깝게 표현하여 서술함으로써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중립성은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선이하나 가정, 편견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해석과 분석된 내용을 보여주며 내용을 검토 받았다. 또한, 본 연구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 연구내용과 결과를 동료 연구자와 논의하고 최근의 연구물과 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 4.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결과 주제범주와 하위범주를 정리하면, 청각장애대학생들은 “교수학습영역”의 하위범주에는 장애학생과 학습도우미 갈등, 강

의실내 권력구조로 위축, 장애학생도우미 인력수급 편차, 장애학생우선수강제도의 비효율성이 포함되었다. “시설·설비영역”의 하위범주에는 미비한 학습기자재로 학업참여 어려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접근성 한계, 안정성 위험이 포함되었다. “대학생활영역”의 하위범주에는 캠퍼스 내 차별의 무감각화, 교직원의 장애인감성 부족, 서비스 평가에 대한 양가감정, 그리고 적응유연성이 포함되었다.

### 4.1 교수학습영역

#### 4.1.1 청각장애학생과 학습도우미 갈등

교수학습영역에서 학습도우미는 학교 내의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학생의 특성화되고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를 세심하고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인적·행정지원의 가교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한 청각장애학생과 학습도우미와 관계가 중요하다. 학습도우미들이 역할 불이행, 무책임성, 중도탈락 등은 청각장애학생과 학습도우미간 갈등을 초래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포기로 이어져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전공과학생 수업도우미를 배정해 줘서 강의 내용에 대해 속기를 부탁했어요 다 적지 않고 요약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막 줄아요 수업대필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나중에는 강의노트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시험 끝나고 그래서 제가 센터에 지원을 포기한다고 했는데이런 학기에 또 같은 사람이 배정이 된 거예요지금은 그냥 혼자 수업 듣고 있어요.” (case3)

#### 4.1.2 강의실내 권력구조로 위축

수업의 전 과정은 교수(강사)에게 권한이 있다. 교수는 장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원활하게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학생은 듣는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강의내용을 수화, 강의노트, 속기 등에 의존한다. 강의에는 교수, 학생, 학습도우미가 참여하고 필요한 보조기기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수자(강사)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인과 팀별 학습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요청에 거부적 태도일 경우 장애학생은 강의실 내에서 교수와 다른 학생들에게 위축감을 느낀다.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받아, 스카이프(skype)로 속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지 말라는 건지. 오히려 제가 교수님께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 (case3)

#### 4.1.3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제도의 비실효성

장애학생우선수강신청제도는 장애로 인해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받거나, 수강마감으로 인하여 특정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강과목 교수자(강사)에게 장애의 특성과 장애로 인한 교수학습상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전공과목의 경우 학과에서 시간표가 정해져서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수강과목 교수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학습도우미지원 교과목 수에 한계가 있다.

“우리고 우선수강신청 가능한데, 특수교육학과가 수강과목이 많아서 고등학교처럼 학교에서 시간표처럼 전공수강과목을 정해줘요 실질적으로 우선수강제도신청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장애학생의 학습능력 정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고려한 등록금고지를 해주기도 해서 나름 괜찮아요 (case2). “우리과도 특수교육이라 시간표가 미리 정해줘요 월/금 강의가 없고 나머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율권이 없어요.” (case3)

#### 4.1.4 학교별 장애학생도우미 인력수급 편차

청각장애학생수는 전체 장애학생의 10%정도이고, 학교마다 학습도우미를 뽑을 때 장애학생의 특성과 수강과목 매칭에 차이가 있다. 학교조직에서 장애학생지원이 적극적일 경우, 센터와 담당직원이 학습도우미 모집을 홍보하여 재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신청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신청한 수강과목과 학습도우미를 연계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습도우미가 있더라도 그 수가 부족하여 장애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청각장애학생이 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비적극적인 센터도 있다.

“도우미 지원자가 적어서 무조건 받는 거죠 매 학기 도우미가 바뀔 수도 있는데 한명의 도우미와 3년 동안 같이 한 도우미도 있고 속기사는 1명, 우리는 청각장애인이 10명도 되는데 속기사가 1명이라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말

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대요(case1). “전문도우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과목 중에서도 컴퓨터나 수학이나 전공생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영어는 대학에서 필수잖아요 영어 강의를 속기해 줄만한 영어속기사가 한국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case2)

## 4.2 시설·설비영역

### 4.2.1 미비한 학습기자재로 학업참여 어려움

청각장애 특성은 듣는 정도에 따라 1급~6급이고, 같은 등급이라도 들을 수 있는 소리(주파수)가 다르다. 청각장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는 학습기자재를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 보조기구는 청각장애학생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학습기자재로 보이스트레코더, 음성증폭기, 노트북 등을 센터에 마련하고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학습기자재 활용에 필요한 부속품이 점검되어 있지 않아 대여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업참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강의노트나 속기 지원할 때 노트북도 대여해 주거든요 멀티탭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배터리가 필요한 보조기구의 경우 점검하지 않은 채 대여해 준적도 있어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때 신속히 교체해 줘야 하는데 수업도우미 학생이 대처하지 못하거나 센터 담당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죠 임시적으로 수업내용을 녹취하고, 이후 전사한 강의노트 받았어요” (case1)

### 4.2.2 편의시설 미비로 접근성 한계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교육복지영역에 적용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의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설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37]. 배리어프리(barrier-free) 학습환경은 장애인전용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뿐 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환경, 도서관, 생활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면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청각장애는 들리는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남자소리는 잘 못듣고 여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인지 음성증폭기등 이런 보조기기가 있더라도 맞지 않아요. 센터에서도 쉽지 않겠지만”(case1). “학교에 속기 도우미가 없으니까요 다른 대학에 스카이프(skype) 연결해서 강의내용 즉석에서 속기지원 받아야 하는데 연결하기 위한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를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구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case3)

#### 4.2.3 안정성의 위협

청각장애인은 수어나 구어를 하지 않으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학생활에서 학습환경뿐 아니라 기숙생활 공간을 포함해서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각손상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예방차원의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학생수가 많은 편이라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학생을 많이 돕거든요 생활도우미는 지체장애인 학생이 기숙사 생활할 때 옆에서 도와 위험에 대처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정보기가 마련되어 있긴 한데 작동되는지 알 수 없어요”(case2)

### 4.3 대학생활영역

#### 4.3.1 캠퍼스내 학생들의 장애차별 무감각화

장애발생이후(onset of hearing impairment)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은 제도적·일상생활로부터 장애에 대한 시선과 물리적·언어적으로 가해지는 차별행위를 지속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차별에 대해 무감각화해지고 있다.

“수업에서 어려운 것은 팀플이에요 수업에서 그룹토론하거나 그룹과제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멤버들이 기다려 주지 않은 분위기죠 장애학생을 많이 보니까 일반 학생들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말이 수업 들으면 아무래도 수화통역이나 대필하는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팀플하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case2)

#### 4.3.2 교직원의 장애민감성 부족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은 대부분 대학의 행정직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학문적 배경이 다양하다.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 등을 전공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 서비스의 원활성과 지속성, 책무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센터직원의 장애인식부족과 장애인감성을 배제한 교육복지서비스는 장애학생의 필요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센터나 학교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의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친다. 이는 장애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교육복지서비스나 정당한 편의와 기회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장애학생지원은 장애인학생들에게 센터직원 개인의 신분이 아닌 학교/조직차원에서 이행되는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센터 직원이 정말 장애학생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장애학생을 위해 센터가 있어 다행이고 학교가 표면적으로는 잘 되어 있지만 깊이 보면 청각장애인 학생이 제일 많은데도 지체 장애를 위해서밖에 없어요 센터 직원도 수화 하나도 모르고 팀장인 그 분이 간호학 전공했었는데, 나 간호 전공했으니까 아프면 약 줄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case1)

“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은 저 하나, 유일하거든요 센터 방문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없느냐 물었어요 직원이 ‘인공와우 수술 이후 재활치료로 음성언어로 소통가능하나 들리는 정도는 환경에 따라 다른 사례 잘하는데 왜 수업도우미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case3)

#### 4.3.3 청각장애학생의 센터평가에 대한 양가감정

장애학생지원서비스에 관한 만족도조사와 간헐적인 간담회가 열려, 장애학생들이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평가가 있을 경우 센터 관계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받는 부당한 상황이 이행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센터 평가에 있어 당사자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방치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평가하잖아요 안 좋게 다 쓰고 완전 부족하다 썼는데, 팀장님이 무슨 질문을 해도 좋게 이야기 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보다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case1)

#### 4.3.4 대학생활 적응유연성

장애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육복지지원 없이

는 학업성취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학습도우미 서비스와 센터직원으로부터 부정적 경험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학업을 포기하게 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한다. 특히 청각장애학생들은 수화통역사, 학습도우미, 가족을 매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직접 그리고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한다. 직접 소통할 수 없으니 욕구표현이 자유롭지 않고, 청각장애대학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욕구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화, 구화, 필담 등 당사자의 언어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당사자의 언어는 가족, 학습도우미, 수화통역사 등의 매개자를 통한 의사전달보다 진정성 있고 강력하게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도우미활동 신청한 학생에게 교육점점 없이 출석했다는 이유로 도우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우미 활동하면서 장애학생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험담을 막 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센터 직원도 장애 학생에 대해 생각이 나빠지고 다음 학기에는 수업지원 도우미나 원격교육지원하는 속기지원도 다 포기할거예요 (case3)

“학교신문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 하고 신문에 실었어요. 직원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 센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센터장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 불편한 것 없니? 물어보고요.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죠.” (case1)

“강의시간에 교수님께 귀찮음 정도로 계속 물어봐요. 센터에도 요구해요. 수업도우미도 장애학생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구하는게 좋다고 그게 센터가 할 일이고요.”(case3)

##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교육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청각장애인대학생들이 소속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학생지원센터 측면에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학생의 0.3~1.5%가 장애학생이고 이 중 청각장애학생은 10%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소속부처가 교무처, 학생처 등 학교구조마다 다르며, 센터직원은 행정직원이 겸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채용된 전담직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처우가 낮은 상태였다. 청각장애특성을 고려한 학습기자재 구비는 미비했으며, 비치된 학습기자재는 대부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들이었다. 학습과 생활도우미의 역량과 인력수급이 불충분하였고 매칭과 활동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청각장애학생들이 센터 이용시제도적 또는 일상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센터직원과 학습도우미와 갈등,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강의실내 권력구조와 센터직원의 장애인감성 부족, 학습도우미의 무책임성은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별로 인식되었고, 학업을 포함한 대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로 이어지고 있었다. 셋째, 청각장애학생들은 갈등과 차별 경험상황에서 타인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학업이나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 중에는 학습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교육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현장에서 정책적·인상적 실천과 학문적 실천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교육복지현장에서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은 전담직원의 배치와 처우개선이 장애학생지원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교직원이 장애인감성을 갖는 경우 장애특성에 맞는 교수학습기와 학습도우미 선정, 매칭, 관리, 그리고 교수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지원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학생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화가 달라진다. 학교문화는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는 차이가 아닌 다름이 인정되는 문화를 동등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셋째, 본 연구가 청각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사례연구로써, 다양한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제도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학습환경에 따라 ICT, IoT기술이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1] Higher Education In Korea. <http://www.academyinfo.go.kr>. (2018. 5. 30)
- [2] S. W. Gwan. (2017). A Case Study of Actual Condition of Learning Support for and Satisfac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8(1), 71-92.
- [3] S. B. Choi. (2010). Analysis on Sign Languag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cesses of 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er at the College Center for Handicapped Students: Focused on H College Center for Handicapped Students. *Journal of Children Education*, 12(1), 23-45.
- [4] S. W. Gwan & B H, Kim. (2003). A Study of Current Status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Disability in Campu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2(1), 125-144.
- [5] D. I Kim & J. Y. Son. (2009). A Study on Instructor Perception and Support System for Teaching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1), 85-112.
- [6] J. Y. Kim & S. W. Jang. (2017). A Study 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through SWOT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3), 155-177.
- [7] D. J. Park, J. H. Choi & J. U. Lee. (201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eaf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Deaf Youth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3), 155-183.
- [8] J. S. Lee, E. Y. Choi & Maria Gong. (2014). Impact of Deaf Identity of The Youth with Hearing Impairment on Career Barrie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pecial Education &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53(4), 339-361.
- [9] M. J. Lee & B. J. Park. (2014). Multiple Mediator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the Relation of Disability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53(1), 199-122.
- [10] J. R. Park.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Deaf for Meaning of the Sign Language Experience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Experi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4), 93-122.
- [11] J. H. Lee. (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503-514.
- [12] S. O. Yun & Y. J. Kang. (2007). A Study o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2), 71-89.
- [13] E. S. Lee & S. Y. Yoon. (2016).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Focused on School and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455-461.
- [14] S. U. Lee & M. Y. Song. (2002).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ing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to Affect Work Adjustment for Person with Hearing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2(2), 213-242.
- [15] K. B. Jo & J. N. Paik. (2018).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Job Satisfaction of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33-140.
- [16] S. H. Kang.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ypes of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7-123.
- [17] J. Y. Chung.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 Services Model for Disabled Users in University Librari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73-91.
- [18] J. G. Song. (2003). The Study of Expanding the Broadcasting Access Right for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57, 147-178.
- [19] Y. Jeun. (2012). L'accessibilité des Contenus Audiovisuels aux Personnes Handicapées. *Kyungpook University, Law Journal*, 39, 397-420.
- [20]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6). Evaluation Report on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Education.
- [21]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index/>. (2018. 5. 30).
- [22]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https://www.nise.go.kr> (2018. 5. 30).
- [23] B. J. Brueggemann. (1999). *Lend Me Your Ear: Rhetorical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4-37.
- [24] M. W. Yun & K. R. Hwang. (2014). Effects of Inferiority feeling, and College Life Maladjustment of

-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on Social Anxiety.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4), 121-140.
- [25] J. U. Lee.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f Identity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4(4), 173-204.
- [26] M. O. Kim, H. S. Kim & M. Y. Lee. (200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isabled Adolescents' Experience of Puberty. *Korea Youth Research*, 10(1), 167-197.
- [27] J. Y. Choi.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571-2589.
- [28] S. H. Jeou & S. H. Shon. (2013). An Analysis Study of the Experience to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Learning Support.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4(3), 261-292.
- [29] B. Y. Aan & I. H. Kim. (2009). *Educational Welfare Policy*. Dasan Books.
- [30] J. J. Kim. (200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Mental Disorde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0(2), 97-124.
- [31] J. H. Kim. (2004). A Review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oonchunhyang Journal of Institution and Humanity*, 13, 119-136.
- [32] M. S. Kim. (2011).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of Assista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Univers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0(1), 187-207.
- [33] M. Y. Jeon & H. W. Lee.(2017). A Survey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13.
- [34] Gray Thomas & Kevin Myers. (2015). *The Anatomy of the Case Study*. SAGE, London, UK.
- [35] A. Lijphart.(199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2), 682-693.
- [36]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 [37]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http://bf.koddi.or.kr> (2018. 5. 30).

김 선 희(Kim Sun Hee)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6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ocial Work (MSW)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교육복지, 고용정책
- E-Mail : kimsunhee@skku.edu